

navien

Vol.
143
2017 SPRING



navien

SPRING 2017 Vol.143

Contents




- 04 House Of Temptation | CY House
- 10 Hobby of Honors | Tableware
- 12 Space Environment | Storage
- 16 Trend
- 20 Life & Style | 동화 속 집
- 24 Housing History
- 28 NAVIEN Story
- 32 Special Issue | 옥상정원
- 34 News
- 38 SNS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navien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발행인 홍준기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여의도동, 코아미빌딩 신관) (주)경동나비엔 사보 담당 홍보팀 이수용 기획·디자인 및 제작 감 커뮤니티 02-6713-0999
문의 02-3489-2496 팩스 02-3489-2221

 www.facebook.com/NavienKorea

 www.kdnavien.co.kr

CY HOUSE

DESIGN STUDIO: Kedem Shinar Design / LOCATION: the Jerusalem Hills, Israel

아름다움과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떤 조건이라도 관계없이 모든 건축가가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제다. 이 과제는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케데ם 쉬나 디자인(Kedem Shinar Design)의 디자이너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케데ם 쉬나는 이 과제에 아주 익숙하고 매우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 예를 들면, 충분한 햇빛을 실내로 들이고 주변 환경과 공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다채로운 수상 경력의 케데ם 쉬나는 예루살렘 언덕과 주변의 푸른 숲, 풍부한 햇빛을 활용해 CY House를 숲과 햇빛, 맑은 공기가 풍부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다.



CY House는 구조와 기능, 아름다움을 모두 충족한 주거 공간이다. 실내는 높은 천장과 블랙&화이트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널따란 유리 벽은 풍부한 자연 채광과 경관을 실내로 들여 조화로운 공간을 만든다. 지붕과 창을 활용해 쾌적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덕분에 숲의 나무와 푸른 잎이 만드는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신선한 분위기가 공간에 가득하다. 특히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천장은 1층 바닥부터 2층 천장까지 닿는 인상적인 도서관과 함께 공간에 장엄한 분위기까지 더한다.



디자이너는 CY House에 대해 그동안의 통찰과 미학의 결정체라 자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활동 경력과 현대 건축에 대한 존경, 미학적 열정을 모두 발휘해 주변 지역의 환경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로 CY House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먼저 부지 주변으로 가득한 감미로운 올리브 나무와 노송나무, 오렌지 나무숲 등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공간의 총 면적은 350m²로 알루미늄으로 덮인 지붕이 인상적이다.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지붕은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물론 하얀 벽과 잘 어울려 보기에도 좋다. 목재와 콘크리트, 철, 알루미늄과 같은 소재가 적재적소에 쓰여 안정적인 느낌이다.

CY HOUSE
by Kedem Shinar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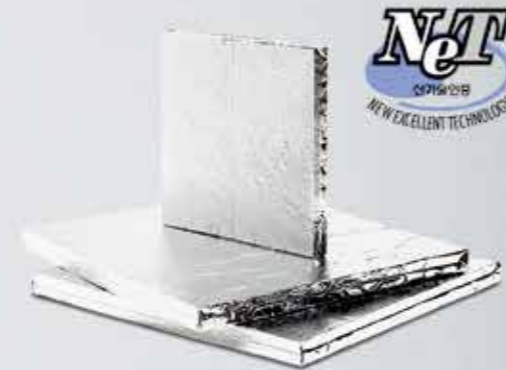
케데미쉬나 디자인(Kedem Shinar Design)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다. 이스라엘과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며 다양한 건축물을 선보여왔으며 작품마다 세계 유수의 어워드에서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물론 브랜드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단열재의 세대교체

두껍고 낮은 성능의 기존 단열재보다
8배이상 뛰어난 단열성을 가진
HYPER-VAC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성능 흡드실리카 진공단열재 HYPER-VAC

- 기존 단열재 대비 8배 이상 우수한 열전도율(0.004W/mK)
- 화재에 안전한 무기소재로 준불연재료의 성능 보유
- 우수한 성능과 제품 안정성으로 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인증
- 폭넓은 사용 온도대와 30년 이상의 수명 유지

댄싱 댄싱 콘덴싱

북극곰을 춤추게 하고 싶다면



Join the 콘덴싱

콘덴싱보일러 1대 설치 시 1년에 CO₂ 약 576kg 감소 효과
이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콘덴싱을 켜세요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록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공공건축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OLD COUNTRY ROSES
ROYAL ALBERT

T A B L E A S G A L L E R Y

TIME-HONORED TABLEWARE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옛말처럼 요리는 정성스러운 재료와 조리로 만들어지는 맛뿐 아니라 플레이팅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매번 TV 속 셰프들이나 고급 레스토랑처럼 테이블을 세팅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식탁을 풍성하게 그리고 식사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 바쁘고 신경 쓰기 어렵다면 아름다운 테이블웨어를 활용하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테이블웨어라면 음식을 가지런히 놓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다.



IITTALA
TIMELESS DESIGN SINCE 1881



스토리지

생활을 담는 가구

옷장을 뜻하는 워드روب(Wardrobe), 서랍장으로 번역되는 드로워(Drawers), 궤나 상자를 부르는 체스트(Chest), 책이나 식기 혹은 작은 물건을 보관하는 선반(Shelve) 등을 통틀어 스토리지(Storage), 수납 가구라 부른다. 이런 대표적인 가구들 이외에도 캐비닛(Cabinet), 오토만(Ottoman), 랙(Rack), 보드(Board) 등 다양한 가구를 모두 스토리지 또는 수납 가구라 부른다. 한국의 장롱(櫥籠) 역시 마찬가지다. 이름과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수납, 보관, 저장, 뒤라 부르든 결국 물건을 두는 물건 혹은 물건을 두는 기구다.



: SHOWTIME MULTILEG CABINET © AIME HAYON

워드روب(Wardrobe, 옷장)은 원래 가구가 아니었다. 워드روب은 원래 하인들이 왕과 왕비 혹은 귀족의 옷을 별도로 관리하던 방이었다. 보초, 수위 등을 뜻하는 Warder와 예복, 의상을 의미하는 Robe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침실에 놓인 나무 옷장이라는 뜻으로 통하지만, 원래는 귀한 옷가지와 갑옷, 무기, 보석 등을 함께 보관하던 일종의 창고와 같았다. Wardrobe의 다른 말은 그래서 아모어(Armoire)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로 된 커다란 상자 모양의 옷장이 등장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잘 개어둔 옷과 귀한 천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전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튼튼한 상자에 넣어두는 것이었다. 산업 혁명과 근대를 지나 현대인들이 옷을 보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이다. 옷을 보관하는 이 흔한 방식을 위해서는 옷 외에 두 가지 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옷을 거는 옷걸이와 옷걸이를 거는 긴 막대 혹은 긴 막대가 달린 옷장이다. 모든 수납 가구가 더 커지고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옷장은 오히려 작아졌다. 사실은 창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던 왕과 왕비를 위한 옷장이 요즘에는 방에 거뜬히 들어가는 작은 상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 HOLE IN THE FLOOR © RAW EDGES



: TOMATO POSTER © J'AI ME BLANC



: PAPER BUFFET PATCHWORK © STUDIO JOB

그러나 그 어떤 가구보다 옷장은 중요한 가구가 되었다. 규모가 작아진 만큼 의미와 가치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선 주인공 조제가 옷장에 들어가 자신만의 세계를 사는 모습이 나온다. 좁지만 충분히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가구로서가 아닌 공간으로서의 옷장은 그래서 비밀스럽고 은밀하다. 또 다른 영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에서는 옷장이 요정의 나라로 통하는 관문으로 등장한다. 우리가 옷장을 가구가 아닌 공간으로 여긴다는 증거다. 어떤 철학자들은 옷장을 '집 속의 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쩌면 중세의 왕보다 요즘의 평범한 이들이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옷장 가득 걸린 다양한 옷가지와 신발장, 약세서리장을 본다면 확실히 그렇다. 옷뿐만 아니라 책이나 장식품, 사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생각한다면 요즘의 우리는 이전 어떤 시대의 왕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수납 가구의 발전은 시민의 풍요와 함께했다.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만큼 수납 가구도 함께 변한다. 너무 많은 물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납 가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장식적인 옷장이 아닌 옷걸이행거(Clothes Rack)만 사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SPACE
environment

: CABINET GREY © J'AI ME BLANC





북니처 Bookniture



북니처(Bookniture)는 언뜻 책으로 보인다. 종이로 되어 있고, 접혀 있다는 점에서 책이라 불려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접을 수 있는 가구다. 평상시에는 책처럼 접어서 책꽂이에 꽂아 둘 수도 있고 책을 쌓듯이 쌓아 놓거나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도 상관없지만, 필요할 때 접혔던 책을 펼치면 마법처럼 의자나 테이블로 변신한다. 상판의 종류에 따라 의자로 쓰거나 테이블로 쓰거나 혹은 받침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간을 적게 사용하고 유지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에 색상,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은 화룡점정이다.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약 900kg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며 이어나 이동에 편한 것은 물론, 가격도 나쁘지 않다. 차가운 길바닥에 앉기 힘든 정의로운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Furniture Hidden in a Book(www.bookniture.com)

\$ 86 ~

데스크 02 Artifox



Artifox의 Desk 02는 완벽한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정교한 책상이다. 이 아름다운 미니멀리스트 데스크는 우리가 책상에 기대했던 모든 걸 충족시켜 준다.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을 위해 단단한 목재와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충분히 가벼우며 쉽고 편하게 조립할 수도 있다. 극도로 단순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를 사용하기 걸맞도록 설계되어 전원 코드와 각종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으며 전원을 위한 멀티탭을 설치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Desk 02는 책상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스피커가 달려 있거나 혹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창하고 엄청난 책상은 아니지만 쉽고 편하게 책상에서의 경험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다. 전량 미국에서 생산되며 화이트 오크와 월넛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추가로 흰색 상판을 선택할 수도 있다.

Modern Functionality(www.theartifox.com)

\$ 950 ~





아우라 Withings

프랑스의 헬스케어 전문기업 위딩스(Withings)의 아우라(Aura)는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정확히는 스탠드, 알람 시계, 인터넷 라디오, 수면추적 센서가 합쳐진 제품이다. 빛과 소리를 이용해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 중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아침이면 적절한 기상 타이밍에 맞춰 사용자를 깨운다. 숙면을 유도할 때는 불빛과 수면 패턴에 맞는 소리를 재생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 시킨다. 규칙적인 저녁 시간 수면 외에도 낮잠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다. 수면 중에는 실내의 소음, 불빛의 강도, 온도, 호흡과 심장 박동, 신체 움직임 등을 감지하고 기록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 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인터넷 음악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와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선곡해둔 음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Improve your sleep environment(www.withings.com)

€189.95



깜빡 잊고 나왔다면~

navien Home IoT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원격 영상 보안은 물론 원격 냉난방 제어까지

가스제어

냉방제어

외출방범

침입감지

난방제어

조명제어

흡부기능

홈허브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아기자기 동화 속 집

Tip 화이트를 베이스로 해
공간이 더욱 깔끔하고 넓어 보인다.

심플하고 단정한 느낌의 편안한 공간으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사용했으며,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주방: 음식을 돋보이게 하고 입맛을 돋우는 주방을 목표로 가장 화려하게 꾸민 곳이다.
노랑과 초록 등 선명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산뜻하다.



베란다: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가득 품은 베란다는 바 테이블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같이 있어서 키즈카페에 온 듯하다. 베란다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방을 꾸미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와 분위기가 느껴진다.

TIP. 식물을 배치해 봄의 화사함을 더했다.

침실: 패밀리형 침대를 두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침실은 붙박이장에 전면 거울을 제작 및 설치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아이 방: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선물한 방으로 벅커 침대를 옮겨 주었고, 침대 아래에는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었다.

베란다에는 아이들을 위한 미니 동물원을 만들어 주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V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유해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한 것은 한국의 경동나비엔이었다.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보급을 장려하기 때문에 콘덴싱보일러·온수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친환경 기술이나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경동나비엔의 획기적인 콘덴싱보일러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동나비엔은 선진 친환경 기술인 콘덴싱보일러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때는 1998년. 10년 전인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했던 한국의 경동나비엔은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함께 '응축잠열회수방식의 고효율, 친환경 가정용 콘덴싱보일러 개발'에 성공한다. 포기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동나비엔은 새롭게 개발한 콘덴싱보일러를 통해 선진 유럽에서 현재 보편화된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국산신기술 인증 KT마크', 업계 최초 '환경마크', 에너지절약 유공기업 대통령 표창, '에너지위너상 및 에너지기술상', '에너지혁신 대상' 등 각종 인증과 수상, 표창을 획득했다.





콘덴싱보일러 기술로 인정받은 경동나비엔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9년 경동나비엔의 비례제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GOM 모델은 국내 가스보일러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은 보일러의 기록을 세웠다. 뒤이어 2006년, 2007년에는 가스비 절감 및 온수의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킨 '뉴콘덴싱 온수'와 '세미콘 온수'도 연달아 선보였다. 특히 '온수' 시리즈는 중온난방수 난방을 통해 온도의 축열 특성에 따른 온도 널뛰기 현상을 극복하고 고객이 원하는 온수 온도와 쾌적 난방을 구현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온돌 난방의 합리적인 복사난방 방식을 과학적으로 구현했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좋아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Join the 나비엔

스마트 분리 난방으로 각자 원하는 골잡온도를 찾자

한 침대, 한 매트 위에서 자는 부부라도 각자 원하는 온도는 다르니까 이제, 나비엔 온수매트의 섬세한 분리난방으로 따로 또 같이 쾌적한 온도를 즐기세요

-  국가대표 보일러의 온도제어 기술 그대로 경동나비엔의 온도제어 기술 NTC 테크놀로지를 보일러를 통해 정확하고 쾌적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  안전 도 안전! Safety 1st 안전 설계 시스템 최첨단/고온도 열밀기/수중안전시스템으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경동나비엔만의 안심 서비스 365일 24시간 행복나눔 콜센터 1588-1144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A/S 센터
-  경동나비엔의 원칙으로 만든 프리미엄 매트 매트라스의 인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쿠션 매트와 관리성과 간결함이 극대화된 슬립 매트를 만나보세요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나비엔 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고객문의] 1588-1144

‘포켓몬고’처럼, 라이프 트렌드를 바꾼 나비엔 보일러

2017년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게임이기에 뒤늦은 국내 출시의 반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서비스 시작과 함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했다. 포켓몬고의 인기로 인해 포켓몬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포세권(포켓몬+역세권)’, 게임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포수저(포켓몬+금수저)’, 포켓몬고의 경제효과를 의미하는 ‘포케코노미(포켓몬+이코노미)’ 등의 신조어가 속속 등장했으며,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중 포켓몬고 사용을 단속하는 집중단속을 시행했을 정도다.

포켓몬고의 성공 요인으로는 증강현실(AR)을 접목시킨 신선한 게임 방식, 1996년부터 20년 가까이 쌓아온 다양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IP(지적재산권) 등이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포켓몬스터의 영향력이 증강현실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포켓몬고의 성공이 더욱 놀라운 것은 집안 구석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게이머들의 라이프 트렌드를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향하게 한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게임업체들이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동시대 문화 속에 녹아있는 삶의 패턴에 맞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때로는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먼저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제품들도 나타난다. 뽀뽀의 시대를 종결시켰던 휴대전화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스마트폰처럼 흔히 ‘혁신’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 등장과 함께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삶 주변에 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포켓몬’처럼, 어떤 변화는 장시간에 걸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바로 우리 집 한구석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일러 같은 제품 말이다.

피카츄가 세상에 등장한 다음해인 199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한 보일러 기술이 시도됐다. 국내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이 집에서 고고 켜는 것이 당연시되던 보일러를 집 밖에서도 전화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만든 ‘따르릉’ 보일러를 출시한 것이다. 보일러가 가동을 시작해도 바닥이 열을 충분히 축적해야만 집안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난방온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온돌난방 방식의 단점을 해결한 보일러 ‘따르릉’은 더욱 편리한 난방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한 온도를 구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보일러의 원격제어 기술은 곧바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대한민국의 난방문화를 바꿔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뒤이어 경동나비엔은 난방 트렌드가 세대 난방에서 각방 난방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각방제어시스템을 기본으로, 방범, 방재 기능과 원격제어까지 구현한 전력선통신 기반의 홈네트워크, 홈오토메이션 제품으로 원격제어 기술을 확장시키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삶에 더욱 효율적이고 쾌적한 난방을 확대해 나갔다.



경동나비엔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은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2013년 '스마트 원격제어보일러'로 완성됐다. 마치 증강현실이라는 기술력과 만나 그 잠재력을 폭발시킨 '포켓몬고'처럼 말이다.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술력이 만나 보일러는 점차 확대되는 스마트홈 시장에서 최적의 난방을 구현하는 스마트 기기로 극적인 변화를 이뤘다. 그리고 이에 맞춰 소비자의 라이프 트렌드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난방에 맞춰 변화해가고 있다.

유난히 추운 날, 고향의 부모님이 난방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끄고 계시지는 않을까 마음 졸였던 아들의 걱정과,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추운 집에 돌아와 난방을 잘 켜고 있는지 걱정하는 워킹맘의 고민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아버님댁에 보일러를 놓아드리는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마트한 '원격제어보일러'를 놓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집 안 구석에 조용히 있던 보일러에서, 이제 가스비 걱정은 물론 어디서든 난방을 제어하며 걱정을 덜어주는 '민는 구석'으로 변화한 똑똑한 보일러 기술을 통해 경동나비엔은 나날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도시를 바꾸는 옥상정원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옥상, 지붕 면적을 모두 정원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옥상녹화가 도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옥상에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도시 생태계가 복원되고 도시 열섬 현상의 완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건물의 냉방에너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크다.



옥상녹화는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인 CO₂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빗물 저장기능을 통해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과 함께, 대기 중 먼지를 흡착, 분해하고 공중 소음을 흡음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옥상녹화에 쓰이는 인공토양은 식물 생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순수 무기질 토양으로, 무게가 자연토양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면서 단열효과는 자연토양의 10배에 이른다. 인공토양 공법을 적용한 옥상녹화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난방에너지를 최대 10%, 냉방에너지를 최대 1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옥상녹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은 적지 않다.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고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어준다. 뜨겁게 달궈진 회색 도시를 식히는 옥상정원.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는 현 시대에 최고의 지붕은 푸르른 나무와 풀이다.

경동나비엔, 상해 신제품 발표회 개최 및 AWE 전시회 참가



지난 3월 8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히말라야 호텔에서 경동나비엔 신제품 프리미엄 가정용 온수기 발표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중국시장에서 벽걸이 보일러 중심의 B2B 사업을 영위해온 경동나비엔은 이번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13억 인구의 중국 B2C 시장 본격 진출을 선포했다. 이날 소개된 신제품 프리미엄 가스 온수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동나비엔의 온수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온수 품질을 선사하는 ‘명품 온수기’다.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외장을 채택한 것은 물론, 기존에 열교환기의 소재로 많이 사용됐던 동보다 평균 3.8~4.5배 침식에 강한 내구성을 가진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부식에도 강하다. 뿐만

아니라, 공기량의 변화를 읽어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돕는 APS 기능을 적용해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신제품 발표회에 이어 3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세계 3대 가전 전시회인 중국 상해 AWE 전시회(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에 참가했다. 본격적인 B2C 시장 진출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과 거래 문의가 있었으며, 경동나비엔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환경부 및 지자체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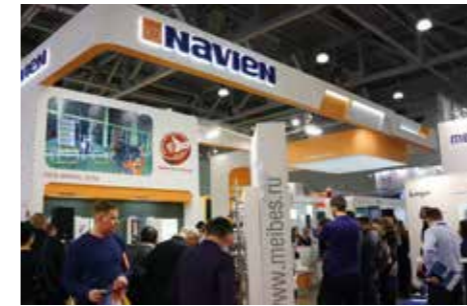
경동나비엔이 지자체들과 함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해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점차 심화되는 에너지 자원 고갈과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를 해소하고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감소효과가 큰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을 비롯해 6개 보일러사가 참여하며, 이미 사업을 시작한 광주, 고양시 등은 물론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가구가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면 구입차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콘덴싱보일러 ‘NCB550’을 이번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 제품은 Eco 듀오 프리믹스 버너를 채택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다. 또한 New ASA 난방을 적용해 설정한 온도로 편차 없이 정교하고 쾌적한 난방이 가능하며, 풍부한 온수용량으로 기존 보일러보다 2배 더 빠르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3가량 슬림해진 사이즈로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NCB550만의 강점이다.

북미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2017 AHR EXPO’ 참가



경동나비엔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7 AHR EXPO(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10년 연속 참가해 북미 시장 No.1 콘덴싱보일러 및 온수기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선보였다. ‘에너지로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을 컨셉으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프리미엄 콘덴싱 가스온수기 NPE와 콘덴싱보일러 NCB, NHB를 전시했으며, 보일러와 온수기의 인터넷 제어 톨 나비링크(NaviLink)도 새롭게 소개했다. 더불어 상업용 시설의 에너지솔루션으로 프린스턴 대학, 메리어트 호텔 등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캐스케이드 시스템도 소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 최대 냉난방 설비 박람회 ‘Aqua Therm 2017’ 참가



경동나비엔이 2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CROCUS EXPO에서 열리는 러시아 최대 냉난방설비 전시회인 ‘Aqua Therm Moscow 2017’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 9년 연속 참가 중인 경동나비엔은 ‘KD Navien, No.1 Brand in Russia’를 컨셉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자신감 있게 선보였다.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부피를 크게 줄이고 원격제어 기능까지 탑재한 보일러와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나비엔 하이브리드 SE’, 그리고 새롭게 ‘NAVIEN 홈 IoT’ 제품을 선보이며, 우수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까지 유감없이 드러냈다.

미국 최대 건축 박람회 IBS 2017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IBS(International Builders Show) 2017에 참가해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 기업을 대표하여 참가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환경오염은 줄이는 다양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콘덴싱보일러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여 냉난방 제어는 물론, 조명, 가스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홈, 외출 방법, 침입 감지 등 안전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비엔 홈 IoT’를 선보이며 건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2017년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사무소 및 평택 서탄공장에서는 경동나비엔, 경동원, 경동에버런, 경동티에스의 주주총회가 각각 열렸다. 특히, 3월 10일 서탄공장에서 있었던 경동나비엔 주주총회에서는 홍준기 사장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의장을 맡은 손연호 회장은 회사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5년 연속 업계 수출 1위와 함께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지난해의 성과에 이어 올해를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크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 경동나비엔 전국 대리점 대표자 컨퍼런스 개최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2017 경동나비엔 전국 대리점 대표자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대리점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대리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의 영업정책과 제품 라인업 소개 및 본사와 대리점의 단합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신임 홍준기 대표이사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회사를 대표해 고객을 만나고 있는 대리점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17년에도 본사와 대리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일궈가자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 돕는 힐링 프로젝트 참여



경동나비엔이 JTBC 예능프로그램 '내 집이 나타났다'에 참여해, 따뜻한 난방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난방 솔루션을 제공했다. 2월 3일 오후 9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3월 17일까지 7주간 방송된 JTBC '내 집이 나타났다'는 한 가족의 삶에 기본이 되는 집을 다양한 사연에 맞게 지어줌으로써 대한민국 가정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능 대부인 이경규와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러브하우스'의 주역인 건축가 양진석의 결합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경동나비엔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콘덴싱 기술력을 적용한 나비엔 콘덴싱보일러와 정확한 온도제어로 저온화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감성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를 각 사연자의 가정에 제공하며 최적의 난방 솔루션을 선사했다.

경동원 세라텍사업부 인공토양 '파라소', 지난해 최대 판매기록 달성



경동원 세라텍사업부가 지난해 총 233만 포의 인공토양 '파라소'를 판매하여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17.2%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파라소'는 국내 퍼라이트 인공토양의 대명사로 식재 조성에 도움을 주고 도시의 녹지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10~15%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파라소'는 일반 흙보다 하중이 가벼워 인천공항, 판교 현대백화점, 하남 스타필드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빌딩, 주상복합단지 등에서 조경용 인공토양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 2017 전국 대리점장 간담회 개최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2월 17~18일까지 서탄공장과 경동인재개발원에서 '2017 전국 대리점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하루 안에 모든 일정이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2016년 우수대리점 시상, 2017년 영업전략 및 대리점 운영방안 소개, 제품 라인업 소개, 서탄공장 견학 등의 공식 행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강의를 이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사업부는 본사와 대리점의 소통을 강화하고 2017년에도 성공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 2017 DAHOS 대구건축박람회 참가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제 17회 대구건축박람회(2017 DAHOS)'에 참가했다. 대구건축박람회는 최신 건축정보와 트렌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남 지방 최대의 건축전시회이다.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도 앞선 홈 Io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특히 나비엔 홈 IoT 시스템(UHA-1020v)은 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조명,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CCTV 설치 없이도 홈오토 내장카메라로 실시간 집안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문객과 원격영상통화가 가능한 것은 현재 어느 경쟁사도 상용화하지 못한 앞선 홈 IoT 기술이다. 경동원 네트워크사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며 제품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비엔과 #소통하세요!

다양한 이벤트, 유용한 정보로
가득한 나비엔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www.kdnavien.co.kr



국내 최소형 Slim 디자인

최고 수준의 온수 제어 성능
(TDR 7:1/전 제품 믹싱밸브 적용)

실시간 스마트 공기감시 기술
(APS 시스템)



가스온수기도 스테인리스가 올랐다 경동나비엔이 올랐다

국가대표 보일러답게 일반 온수기까지 스테인리스로
경동나비엔 스테인리스 가스 온수기



[고객문의] 1588-1144 [설비업체 전용 문의] 1899-1914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 및 기.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대한민국 최초로 콘덴싱을 개발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스비가 줄었다

미세먼지를 줄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들 함께했다

보일러 하나가 이제 모두의 지구를 지킨다

콘덴싱이 올랐다



1988년 대한민국 최초
콘덴싱보일러 개발

1999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환경마크 획득

2000년 업계 최초
콘덴싱보일러 KS 인증 획득

2002년 업계 최초
콘덴싱가스보일러 미국 수출

2009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획득

2015년 북미
콘덴싱보일러 & 온수기 1위



NCB 900

28년 콘덴싱 노하우로
북미를 사로잡은 프리미엄 보일러



스마트툭

국가대표 보일러의
콘덴싱 기술과 IoT의 만남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 (2015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71.8% 차지 (2015년 한국 무역협회 자료 기준)

[고객문의] 1588-1144